

## 기본소득과나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본소득’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청년기에는 애정 가득했던 주제였으며, 이것이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열쇠라는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돌이켜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주제로 연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막상 원고청탁을 받고 보니, 50대 후반 연구자로서 굴곡이 심했던 연구주제의 편력(遍歷)과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전공을 바꾸어 사회정책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배경에는 기억 속의 몇 장면이 있다. 시기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노점상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당시 나는 서울역 뒤편 서계동에 살았는데,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목에 한 평 남짓 천막에서 붕어빵과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다. 중년의 아주머니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어스름 저녁부터 나와서 그다지 팔리지도 않을 듯한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노점상 단속 때문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주머니와 아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니 말할 수 없는 존재의 나약함과 초라함이 느껴지곤 했다. 나도 한때 복권과 버스표 등을 파는 거리의 간이매표소에서 잠깐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리 서글프고 초라한 기분이었는지 이러한 감정이 이입된 느낌도 있었다.

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로 거리의 반독재 타도 투쟁과 노동 및 사회운동의 이념적 논쟁이 왕성하던 시기였다. 나는 거리의 투쟁이나 사변적인 이념 논쟁보다 실생활 속의 삶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국가가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싶었다.

1991년에 독일로 넘어가 전공을 바꾸어 학부부터 시작하여 석사를 마칠 때

좁은 한국에 IMF가 닥쳤던 시기였고 그 여파도 겪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지도교수가 독일 기본소득의 원조학자였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물을 많이 접했고 이해를 넓혔다. 2002년에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이 주제로 계속 연구하고 싶었지만, 정규잡을 얻기까지 이리저리 오가며 한국 사회에 적응 기간을 거쳤다.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생태공동체’ 관련 연구를 한신대에서 3년간 연구교수로 수행했다. 생태적, 사회적 삶이란 그리고 사회변혁에 대한 사고는 기본소득 주제와도 직접 연결되므로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고 인식의 지평도 넓혔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 앞시간 주제였기에 후속 과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후 정규직 연구원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와 관 조직이 요구하는 주제에 맞추어 작업하다 보니 남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주제를 다루어야만 했다. 기본적인 마인드와 가치, 지향점은 변한 것이 없지만, 양적인 실적과 보여주기식 과제수행에 집착하는 주변 풍조에서 제대로 된 연구자와 학자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기능적인 연구 방법에 익숙한 한국 학계의 풍토도 그렇고 성과와 치적 쌓기가 우선되는 지자체장의 정책 마인드도 그렇고 공통 주제로 같이 고민하며 논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고민과 성찰보다는 빨리빨리 내어놓는 실적이 더 중요하니 말이다.

최근 한 모임에서 지역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에게 들은 사연이 생생하다. 한 분이 상담을 왔는데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합격했는데 채용 공고와는 달리 사업주가 내놓은 계약서에는 주 72시간(주 6일, 하루 12시간)을 요구했다며, 이런 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무국장은 법정 52시간 초과라 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내담자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이렇게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직장을 잡기도 어려우니 계약서에 서명해도 문제는 없지 않냐고 말이다. 아마도 영세한 업체일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벌어야만 하는 상황일 것이다.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무지막지한 노동시간을 견뎌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88올림픽 즈음 나의 경험이나 최근 지역노동인권센터의 상담사례에서처럼 과거나 현재도 왜 기본소득보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기본소득보장이나 복지급여 상승이 게으름과 나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논리는 그만 펼치면 좋겠다. OECD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 청년실업 등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전쟁과 기아로 인한 세계 곳곳의 난민,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 발전에 의한 실업, 암울한 미래세대의 미래,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사회적 위험의 수위는 높아가는 현실에서 이전이나 지 금이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생태적, 사회적 삶의 추구가 이성적인 답임에도 우리는 아직도 경쟁 논리에 집착해 있다.

노동중심적 복지국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노동이 그대들을 삶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가?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삶의 무게가 고달프고 무거운가? 한국인은 어느 국가보다 더 무지막지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